

평화여 다시 오라

구름은 경계를 모른다
바람은 사방으로 분다
햇살은 모든 곳에 비춘다
비에도, 비에도, 경계는 없다
번개는 하늘을 가르다

사람은 높은 벽을 세운다
어제는 형제, 자매, 이웃
오늘은 친구가 적이 된다
시기와 두려움이 스며들고
권력과 돈이 지배한다

전쟁은 이렇게 시작된다
전쟁은 이렇게 시작된다

구름은 경계를 모른다
바람은 사방으로 분다
햇살은 모든 곳에 비춘다
비에도, 비에도, 경계는 없다
번개는 하늘을 가르다

용서는 길을 연다
평화는 다시 온다
원수도, 원수도 친구가 된다
평화여, 평화여, 다시 오라

가사: Klaus Frieze (alias Erik Tantal)

멜로디 + 보컬:

<https://suno.com/s/8dmgWtYP3hMjhiZa>